

교회소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부활절 여섯째 주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주일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드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4. 주일 예배용 파워포인트 제작 도우미를 찾고 있습니다.
5.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5일 : 박영숙

11일 : 최혜리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배태정 / 설교번역: 허민준

5월 안내 및 봉사: 코니 목장

*향후 교회 일정

-전교인 가족캠프: 6월 8-9(토,주), Prairie River Camp

* 성서일과 Lectionary (제 18주)

시편 98:1-9 / 요 15:9-17 / 행 10:44-48/ 요일 5:1-6

교회세운날 2017.6.11

24-18

5월 5일 (부활절 여섯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on Zoom
마지막 주 수요일은 목자모임으로 대체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oneheartkoreanchurch.com

213-357-7614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현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시편 149:1-4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김배형 형제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요한복음 4장 43-54절 ———— 인도자

설교 ————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 김경현 목사

성찬식 ———— 다같이

봉헌찬송 —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3, 4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김경현 목사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오월은 푸르구나

교회 옆 빈 밭에 드디어 농부들의 손길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 밭갈이를 했나봅니다. 지지난 해에는 옥수수가 심겨졌고 작년에는 콩이었는데 올해는 어떤 씨가 심겨질 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의 5월도 씨뿌리기에 한창인 계절이지요. 특히 모내기가 이때 이뤄지니 1년 중 가장 중요한 계절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스피노자는 사과 씨를 보며 사과 열매를 미리 보았다고 하지요. 지금 뿌리는 씨앗이 무엇이든 뿌리는 이는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맹자의 공손추(公孫丑)에 어리석은 송나라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부는 모내기를 한 이후에 벼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궁금하여 눈에 가봅니다. 자신의 논의 벼들이 다른 사람들의 벼보다 덜 자라보였습니다. 농부는 궁리 끝에 벼의 순을 잡아 빼보니 더 자라 보였습니다. 다음 날 눈에 가보니 벼가 다 말라 있었다는 어리석은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유래된 사자 성어가 발묘조장(拔苗助長)입니다. 조장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급한 나머지 서두르다 일을 그르친다는 뜻입니다. 씨를 뿌린 자의 미덕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때마침 5월 5일 어린이 날이네요. 미국에서는 의미 없는 날이지만 한국에서는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 중 한 날이지요. 어린이들을 자라나는 새싹에 비유하곤 하는데, 5월의 푸르름이야 말로 아이들과 참 잘 어울립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농사에 비하기도 합니다. 고된 농사일처럼 자녀들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열매 맺는 지난한 과정을 생각하며 한 말 같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더디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의 기대와 바람은 그들을 기다려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남보다 뒤쳐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자꾸 세상이 정해 놓은 틀 속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농부처럼 아이들에게 억지를 부려 당장의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숨막혀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 둔 틀 속에 그들이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더디더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불안하더라도 아이들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무한 경쟁에 내몰린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까 걱정되고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대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좋은 씨앗이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심고 물 주지만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뿌린 씨가 자라지 않을 때 덧 뿌리는 씨를 ‘움씨’라고 하지요. 가뭄에 씨앗들이 타 죽어갈 때, 어머니와 함께 밭에 가서 움씨를 뿌리고 물을 길어다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 교육은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조금씩 하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움씨를 뿌려야지 않을까요?